



정평위 '만장 행진' '물의 날'인 22일 오후,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신도 등 2천여명이 승촌보 축조공사가 진행중인 나주시 노안면 공사 현장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미사를 올린 후 만장을 앞세우고 행진하고 있다. /나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법정스님 책 절판”

출판사들 합의

“그동안 풀어놓은 말뚝을 다음 생애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는 법정스님 유언에 따라 법정스님의 저서를 출간한 일부 출판사들은 22일 법정스님이 이끌던 봉사단체 매통향기롭게와 협의해 법정스님의 저서를 절판하기로 했다.

22일 문화의숲과 범우사에 따르면 매통향기롭게 측은 이날 이들 출판사를 찾아 법정스님의 유지를 설명하고 절판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출판사들은 법정스님의 유언에 따라 절판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 절판을 위한 절차와 과정, 시기에 대해서는 매통향기롭게와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의숲의 고세규 대표는 “절판 과정과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 매통향기롭게와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난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으며, ‘내가 사랑한 책들’,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무소유’ 등 모두 2권이 20위 안에 들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3시 33분 해질 18시 46분 달뜨기 11시 03분 달지기 01시 14분

바람타고 황사먼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비	7/10℃
목포	흐리고비	7/11℃
여수	흐리고비	7/9℃
완도	흐리고비	7/10℃
구례	흐리고비	6/10℃
애남	흐리고비	7/10℃
장흥	흐리고비	7/10℃
고흥	흐리고비	6/9℃
순천	흐리고비	7/10℃
영광	흐리고비	6/10℃
진도	흐리고비	7/10℃
전주	흐리고기름비	5/10℃
남원	흐리고비	3/9℃
목산	흐리고비	6/9℃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1.0~2.0m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목포 07:04 12: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여수 01:46 07:54
 목포 13:30 20:2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6/11	5/12	1/9	0/12	2/13	3/15

천주교 연대 영산강 승촌보서 “4대강 사업 중단하라”

생명평화미사 열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가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재학 신부)와 천주교 연대는 22일 나주시 노안면 승촌보 공사 현장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영산강 생명평화미사’를 열었다. 이날 미사에는 성직자와 수도자·신자·환경단체 관계자 등 2천여명이 참여했으며, 1시간여의 미사가 끝난 뒤 인근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중단을 주장했다.

천주교 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공동선(善)과 강의 생명을 선택한 후보를 식별하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그만둘 때까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고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권역별(낙동강·영산강·금강·한강) 생명평화 미사를 열고 있는 천주교 연대는 지난달 22일 낙동강 유역에서 미

사를 진행했다. 다음달 19일과 5월 10일에는 각각 금강과 한강 유역에서 미사를 올리고 4대강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교육청 학교급식 대책

광역시 1위·전국 2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평가에서 광역시 가운데 1위, 전국 시·도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위탁급식 직영전환 실적, 만족도 조사, 급식시설과 기구 현대화, 식재료 구매, 학교운영위 위원회 조례개정, 급식위원회 구성 등 7개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40점 만점에 38점을 획득, 6대 광역시중 1위, 전국 16개 시도를 포함하면 충북에 이어 2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월 영령 ‘얼굴’ 찾아준다

5·18묘지 영정 없는 8기... 사진 없으면 초상화로

5·18 구속부상자회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사)5·18 구속부상자회 남구지회가 국립 5·18 민주묘지(이하 5·18 묘지) 내 영정 없는 희생자들의 ‘얼굴 찾기’에 나섰다.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에는 80년 5월 당시 희생된 700명(상이 후 사망 포함)의 희생자 중 영정없는 8기의 묘가 있다.

이들은 당시 폭도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아픈 기억을 잊고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진 등 유품을 모두 없앴기 때문이다.

이들의 묘비 옆에 놓인 가로·세로 20cm 크기의 세라믹 액자에는 무궁화가 얼굴 사진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부상자회 남구지

회는 지난 15일부터 유족들을 대신해 5·18 묘지에 안치된 이들의 사진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상자는 고(故) 전재수(당시 11세)·김금단(여·78세)·신행균(42세)·김귀현(45세)·김학수(27세)·이갑열(30세)·박재구(33세)·정인순(여·54세)씨 등이다. 이들은 1980년 5월 당시 희생돼 구묘의 등에 묻힌 뒤 1995년 6월부터 2005년 9월 사이에 5·18 묘지로 이장됐다.

이들의 영정은 고인의 초상이나 사진이 안치된 5·18 묘지 내 유영봉안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남구지회는 오는 5월 31일까지 유족과 희생자의 친구 등을 수소문하는 등 사진을 구해 유족과 5·18 묘지관리소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을 구하지 못할 땐 희생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생전

의 모습을 진술받은 뒤 지역 화가의 도움을 받아 초상화를 만들 방침이다. 또 5·18 행사기간 중 지역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를 모아 잊혀진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추모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남구지회는 예산 일부를 구속부상자회 남구지회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5·18 구속부상자회 이덕호(53) 남구지회장은 “30년이 다 되도록 이들의 얼굴을 찾아주지 못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로서 미안할 뿐”이라며 “당시 신군부에 의해 무참히 희생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한 채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했던 희생자의 얼굴을 하루빨리 찾아 원혼을 달래주고 싶다”고 말했다.

/J종합 기자 galee@kwangju.co.kr

봄은 언제 오나... 오늘 눈·비·황사

춘분(21일)이 지났지만 봄날씨의 변덕이 심하다. 23일 광주·전남에는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과 지리산 등 내륙산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불청객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으며, 종일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22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내륙지방 5~20mm, 전남 남해안지방 20~50mm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

이가 나겠다. 기상청은 특히 22일 내륙 및 황토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 후면의 북서기류를 타고 한반도에 유입돼 23일 새벽부터 밤까지 영향을 주겠으며, 기류 변화에 따라 황사의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7도로 전날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8~12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미한 사건 피의자

신원보증서 안 받아

대검찰청은 검찰이나 경찰 등 전국의 수사기관에서 경미한 사건의 불구속 피의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도록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87년 4월부터 시행된 기존 지침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거나 기각됐거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자 등은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새 지침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기소종지됐다거나 수사 재개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출석 담보와 소재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수명(壽星) 타고난 사주(壽) 운 바꿀 수 없으므로 이름(運명)을 바꿔 개명하여 운명(運命) 인생을 운전하는 것! 꼭 개명하십시오!

1. 개명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복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인緣이 많아지고, 자식도 잘 되고, 배우자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2. 개명하면 인緣이 좋아지고, 인緣이 좋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사업이 번창하고, 사업이 번창하면 재물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3. 개명하면 인緣이 좋아지고, 인緣이 좋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사업이 번창하고, 사업이 번창하면 재물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社団法人 星谷傳統文化研究會

062-227-2356, 010-7671-5628

“저가 도입면... (수익)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첨삭된 구조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외 신개념!!

1. 1차년도 사업

2. 2차년도 사업

3. 3차년도 사업

대한건설공사

T. 02-227-2356 F.P. 011-674-9587